

민주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호남 시·도지사 후보 3인 공동성명

호남이 민주당의 혁신과 새 바람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민생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선진민주국가로 다시 뿔 시간입니다.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문명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인
저희 세 사람은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국가와 호남, 당의 장래에 대해 깊이 논의해왔습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고 미래혁신산업의 기지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였고 정당민주주의와 당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김대중을 탄생시켰고 노무현을 만들어냈고 문재인을 지켜냈고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이 가장 깊지만,
민주당이 쇄신하고 다시 국가와 민생의 중심과 미래가 되기를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곳 또한 호남일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런 호남의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요구와 결의를 밝힙니다.

1.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엔 추상같이 엄격하며, 상대의 잘못은 철저히 비판해 시정하
는 강한 도덕적 리더십을 재건해야 합니다.
2.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된 호남의 민주당부터 정당혁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
리 세 사람은 선거 후 시정과 도정에 전념하면서도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함께하
겠습니다.

3. 선거 이후 전반적인 당 혁신안을 수렴·입안할 혁신위원회를 거당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고 강한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생노선의 강화, 건강한 사회적 가치의 도입,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민주주의 발전, 문호개방 및 인재영입과 세대교체 및 미래세대 육성 등이 혁신위원회에서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4.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안보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코로나 위협에는 인도적으로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전력투구하여 국정 균형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지지층, 당원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품격 있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당원의 염원이자 역사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감사하고 무겁게 받겠습니다.

대선 패배에 실린 무거운 질책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향해주십시오.

투표만이 국정 균형과 한반도평화를 살리고,

유능한 일꾼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새 정부의 독주와 오류를 예방합니다.

저희 세 사람 또한

국민과 시·도민, 당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민주당 혁신과 호남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